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이별 수용의 시가 아니다*

윤 효 녕**

국문초록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이별의 정한, 산화공덕, 한의 정서, 이별에 임하는 무의식적 성적 욕망, 원망을 갖지 않는 근대적 이별 등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해석은 공통적으로 이시가 '이별 수용의 시'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별을 수용하는 화자의 다양한 심리를 분석해내기는 하지만, 그 해석적 다양성은 '이별 수용의 시'라는 기본 프레임 안에 갇힌 채 그 안에서 조금씩 다른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진달래꽃」이 '이별 수용의 시'가 아니라 '사랑 회복의 시'라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화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별을 수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화자는 임이 자기에게 “억겨워”진 상황을 순전히 가정하고, 만일 그런 일이 자신에게 생긴다면 진달래꽃을 따다가 임이 가실 길에 뿌림으로써, 억겨워진 임의 마음을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돌리겠다는 방책을 임에게 말하고 있다. 꽃을 뿌리는 행위는 임을 보내는 행위가 아니라, 임을 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반어법과, “삼분히즈려밧고”의 역설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텍스트의 각 부분이 문맥상 다른 부분들과 맺는 의미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끝으로, 이별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임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미학적 대책을 강구하는 지극히 이지적이면서 지극히 감성적인 화자는 지성과 감성을 통합한 소월의 현대시적 감수성을 반영하는 자화상적 페르소나임을 밝힌다.

[주제어] 김소월, 진달래꽃, 역설, 이별, 사랑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맺음말 |
| II. 텍스트 분석 | |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이셨던 고 석경징 선생님 생전에 필자가 오랜 세월을 걸쳐 선생님과 나눈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무르익은 결과물이다. 가없는 감사와 추모의 정으로 이 논문을 선생님 영전에 바친다.

** 단국대학교 교수 / porterst@dku.edu

I. 머리말

1. 기존 해석의 검토

필자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김소월의 「진달래꽃」¹⁾에 대한 그간의 다양한 논의 가운데 일정한 주류를 이룬 해석은 네 가지 경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경향은 이 시의 주제를 ‘산화공덕’과 ‘이별의 정한’으로 보는 것이다. “그를보기가 역겨워져서 가는 女人을……散花의祝典으로서 離別해보내겠다는 無限한 祝福의 心情”으로 규정한 서정주,²⁾ “꽃을 뿌려 축복이라도 하고자 했다”고 본 박목월,³⁾ 그리고 “이별에 대한 사무친 情恨 이밖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닌 순수성”이라면서 정한의 주제를 확립한 박두진은 그 선구자들이다.⁴⁾ 이와 같은 이해는 “산화공덕(散花功德)으로 승화시킨 불타의 자비와도 같은 지순한 사랑”이라는 김장동⁵⁾의 견해나, “불교적인 散花功德의 지순한 행적”이라는 임문혁⁶⁾의 견해로 이어진다.

두 번째 해석 경향은 ‘정한’에서 ‘정’을 떼고 ‘한’으로 이 시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인데, 산화공덕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위의 해석과 시각을 달리한다. 이러한 해석에서는 꽃을 뿌리겠다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화자의 말을 반어적으로 읽음으로써, 그러한 말이 사실은 임을 보내기가 죽도록 싫은 화자의 슬픔과 원망을 심층에 담고 있다고 본다. 오세영은 “진달래 꽃을 뿌려 보낸다는 표현도 떠나는 뒷모습에 汚物 洗禮를 꾀할 수 있다는 反語法”이라고 설명한다.⁷⁾ 박철석 역시 화자가 “원한과 슬픔을 안으로 삭이는 억제하는 힘”⁸⁾을 짊어내며, 김학동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는 결코 울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시적 화자의 심층에는 보다 더한 슬픔과 원망이 사무쳐 있다”⁹⁾고 본다.

세 번째 해석 경향은 이별을 사랑과 관련짓는 것이다. 김대규는 화자의 심정을 무의식적인 성적 욕망으로 설명한다. 그는 꽃이 “정신분석학의 무의식적 상징으로서의 女性 성기”이고 발은 “男根상징”이므로, 꽃을 뿌리는 행위는 “여자의 분신인 〈꽃〉과 임의 상징인 〈발〉과의 〈걸음걸음〉 밟고 감을 통한 육신적 접촉을 의미한다. 헤어짐이 아니라 완전 接合이며, 〈가시웁소서〉가 아니라, 〈가지 마옵소서〉의 무의식적 역설”이라고 본다.¹⁰⁾ 유창근 역시 같은 상징 분석에 기초하여 “남자와 여자의 원형적 교섭일 가능성”을 짊어낸다.¹¹⁾ 그런

1) 작품 제목 및 원문 인용은 김소월, 「진달래꽃」, 『진달래꽃』, 매문사, 1925, 190~191쪽, 도서출판소와다리, 2015를 따른다. 이후 출처 표기 생략.

2) 서정주, 「김소월시론」, 서정주·박목월·조지훈(공저), 『시창작법』, 선문사, 1955, 121쪽.

3) 박목월, 「김소월 : 철 이룬 진달래꽃」, 이희승(외편), 『한국의 인간상』 5, 신구문화사, 1966, 441쪽.

4) 박두진, 「한국현대시론」, 일조각, 1970, 77쪽.

5) 김장동, 「〈진달래꽃〉 신고(新考)」, 『새국어교육』 37, 1983, 435쪽.

6) 임문혁, 「〈진달래꽃〉의 연구성과와 교육적 수용방안」, 『청람어문교육』 1, 1988, 223쪽.

7) 오세영, 「한의 논리와 그 역설적 의미 : 『진달래꽃』과 『초혼』을 중심으로」, 『문학사상』 12월, 1976, 268쪽.

8) 박철석, 『한국현대시인론』, 학문사, 1984, 27쪽.

9) 김학동, 『김소월평전』, 새문사, 2013, 43쪽.

10) 김대규, 「Anima의 시학 : 소월시의 여성화 문제 연구」, 『연세어문학』 4, 1973; 김학동(편), 『김소월』, 서강대학교출판부, 1995, 68~70쪽.

11) 유창근, 『김소월의 시세계』, 도서출판동지, 1993, 61쪽.

가 하면 권영민은 ‘즈러밧고’의 ‘즈러’가 ‘지레’를 뜻하며 “‘지레 밧고’는 ‘남이 밧고 가기 전에 먼저 밧고’라는 뜻으로 풀이된다”면서, 화자의 말은 “길 위에 뿌려 놓은 그 진달래꽃을 다른 사람이 밧기 전에 임이 지레(먼저) 밧고 가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 시는 “사랑의 순결성,” 즉 “자신의 모든 것을 임에게 바칠 수 있는 황홀의 순간”이라는 것이다.¹²⁾ 그리고 권혁웅은 이 시를 “행복한 서정시”로 규정한다. “체념과 인고(忍苦)로 일관한 이별과 한의 미학이라는 세간의 평가는 잘못된 것”이며, “이 시의 가정법은 화자의 강렬한 사랑을 표출하는 방어적 장치”라는 것이다. 즉 “‘설혹 당신이 나를 버린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겠다’라는 고백은 사랑의 극점에서나 나올 법한 고백”이라는 것이다.¹³⁾

네 번째 해석 경향은 이별을 당하는 화자가 수동적인 ‘한’의 정서에 사로잡혀 있다기보다 오히려 이별의 주체로서 능동적인 이별행위를 하는 ‘근대적’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심선옥은 “시적 화자가 이별의 상황에 순응하여 슬픔 속에 자신의 감정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행위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한다.¹⁴⁾ 이수곤도 화자를 “헌신·순종·복종”의 성격을 지닌 “전통적 여인상으로 단정하는 것이 의아스럽다”면서, 화자의 태도를 “낭만적이고 근대적 성향을 띤 사랑의 행위”로 본다.¹⁵⁾ 그런가 하면 권정우는 한번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해야 했던 전통적인 “춘향이”와 달리, 「진달래꽃」의 화자는 “자유의 지에 의해서 사랑과 이별을 선택하는 근대적인 사랑의 주체”라고 본다.¹⁶⁾

2. 본 논문의 입장

이상의 다양한 해석은 모두 이별의 수용을 전제로 한다. 다만, 이별을 받아들이는 화자의 심정을 다르게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들은 각각 나름의 문제점을 지닌다. 필자는 우선 이별의 한이나 정한이라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恨)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 웅어리진 마음”을 뜻하고,¹⁷⁾ 정금철의 설명에 의하면 “마음속에 이렇게 뒤엎히고 엉켜서 웅어처럼 굳어진, 그래서 종래는 ‘멍’ 같고 ‘어혈(瘀血)’ 같은 단단한 웅어리가 박혀있음”을 뜻한다.¹⁸⁾ 당장의 억울한 감정은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한일 수는 없다. 한이 되려면, 그 감정은 오랜 세월이 지나 풀리지 않는 웅어리로 굳어져야 한다. 그런데 「진달래꽃」에서 이별은 화자에게 당면한 현실이나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가정된 헤어짐의 상황”¹⁹⁾이다. 따라서 화자의 감정은 한이든 정한이든 아예 될 수가 없다.

12) 권영민, 「명시의 한 구절 : 〈사뿐히 즈려밧고 가시옵소서〉의 의미 : 김소월의 ‘진달래 꽃’」, 『새국어생활』 8: 4, 1998, 210~212쪽.

13) 권혁웅, 『시론』, 문학동네, 2010, 139~140쪽.

14) 심선옥, 「김소월 시에 형상화된 ‘사랑’의 근대적 의미」, 『반교어문학연구』 12, 2000, 170쪽.

15) 이수곤, 「『진달래꽃』의 전통성 교육에 대한 반성적 검토 : 『진달래꽃』의 이른바 전통적 여인상과 고전시가 여인상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2: 3, 2008, 232쪽, 245쪽.

16) 권정우, 「김소월 시의 구어체 진술」, 『한국현대문학연구』 41, 2013, 19쪽, 34쪽.

17)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검색일 : 2018. 11. 10). 이후 출처 표기 생략.

18) 정금철, 「한의 정서와 시학 : 김소월, 서정주의 시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1, 2009, 111쪽.

19) 유종호, 「임과 집과 길」, 『세계의 문학』 봄, 1977; 김학동(편), 『김소월』, 서강대학교출판부, 1995, 28쪽.

산화공덕이라는 해석도 설득력이 약하다. 이별을 당하는 쪽의 마음이라고 보기엔 일반적 경험직상 납득하기 어렵다. “바로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만든 장본인에게 맹목적인 순종의 美德만을 보여준다는 것이 그 인간적 感情으로 볼 때 과연 가능한 일일까”²⁰⁾ 하고 생각해보면, “가시는 님에게 꽃을 뿌려주겠다는 것은…… 몹시 작위적이고 부자연스럽다”는 유중호의,²¹⁾ 그리고 “극히 작위적이며 恣意에 가까운 발언”이라는 송희복의²²⁾ 이전에 답하기 어렵다. 또한, 꽃을 한 아름씩이나 준비하겠다는 말, 그 많은 꽃을 상대방이 가는 걸음 걸음마다 놓겠다는 말, “삼분히즈려밧고” 가라는 역설적 표현 등, 화자의 의도를 순수한 축원으로 보기에는 문맥상 수상한 구석이 많다.

이별의 상황에서 입과 마지막으로 성적 사랑을 하고 싶다는 것이 화자의 무의식적 욕망이라는 김대규·유창근·권영민의 해석도 어색하다. 그 성애가 화자를 극도로 싫어해서 떠나는 입을 상대로 한다는 문맥을 고려할 때 그렇다. 또한, “다른 사람이 밧기 전에 입이 지레(먼저) 밧고 가라는 것”이라는 권영민의 해석은 더욱 그렇다. 여자의 입장에서 남자한테 자신을 밧으라는 말이 황홀한 사랑을 바라는 일반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왜 사랑받던 동안에는 “사랑의 순결성”을 아꼈다가 입이 역겨워서 간다니까 그때 바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화자가 현재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만약의 이별까지도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권혁웅의 해석은 화자의 행복한 현 심정을 짚어낸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사랑의 극점”과 가정적 이별 수용의 심정을 관련짓는 자세한 텍스트 분석이 필요하다.

자유의지에 의해 능동적으로 이별을 선택하겠다는 화자의 “근대적” 혹은 “낭만적” 태도를 읽어내는 심선옥·이수곤·권정우의 해석 역시 시의 전체적 문맥과 잘 맞지 않는다. 내가 싫어서 입이 떠난다면 나도 적극적으로 떠나겠다는 것이 근대적 혹은 낭만적 사랑의 마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정도의 마음이라면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꽃을, 그것도 양팔 가득히 따다 바칠 정도의 정성은 아닌 것 같다. 또, 있지도 않은 이별을 가정하면서까지 당신이 내가 역겨워져서 떠난다면 나도 주체적으로 이별을 선택하겠다는 말을 화자가 지금 입에게 왜 하는지 담화상황 자체도 헤아리기 어렵다.

기존의 해석들은 분석의 조명이 비추는 부분만을 보면 그럴 듯하지만, 작품의 전체적 문맥과 일반적 경험칙에 비추어보면 설명되지 않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단어 차원에서부터 전체적인 문맥에 이르기까지 화자가 하는 말의 각 부분이 다른 부분들과 서로 긴밀히 관계를 맺는 의미의 짜임새를 고려할 때, 「진달내꽃」은 이별 수용의 시가 아니며, 화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별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화자의 말뜻은 자신이 역겨워져서 입이 떠나는 일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진달래꽃을 뿌려 그의 역겨운 감정을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떠날 마음이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진달내꽃」이 ‘사랑 회복의 시’라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화자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사랑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임을 작품 분석을 통해 입증할 것이다.

20) 오세영, 앞의 논문, 268쪽.

21) 유중호, 앞의 논문, 24쪽.

22) 송희복, 『김소월 연구』, 태학사, 1994, 83쪽.

II. 텍스트 분석

1. 제 1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말엽시 고히 보내드리우리다

기존 해석에서는 이 연이 임이 화자를 보기가 몹시 싫어서 간다면 화자는 심적 부담을 주지 않고 임을 보내주겠다는 뜻이라고 본다. 다만, 두 군데에 관해서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첫 번째 차이는 “가실때에는”에서 “가실”의 미래형 어미 ‘-르’의 지배범위를 놓고 벌어지는 것 같다. 그것이 ‘가상적 또는 가정된 이별’을 뜻한다고 보는 견해와,²³⁾ ‘예정된 또는 예상되는 이별’을 뜻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이다.²⁴⁾ “역겨워/가실때”에 포함된 두 동사 ‘역겹다’와 ‘가다’의 시제는 둘 다 미래형으로 볼 수도 있고, 역겨운 것은 현재이지만 가는 것은 미래인 것으로 구별하여 볼 수도 있다. 즉 ‘앞으로 역겨워져서 그때 갈지 모른다’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역겨워져서 조만간에 갈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전자라면, 현재 임은 화자를 사랑하는 상황일 것이므로 화자에게 이별은 현실적 가능성을 지니지 않는 순전한 가정일 것이다. 반면 후자라면, 현재 임은 싫어하지만 화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떠나는 것만은 일정한 시간 후로 미루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심선옥의 말대로 “이러한 상황 설정은……이별의 현실에 대해 시적 화자가 개입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고, “그 틈은 떠나는 님의 발 밑에 진달래꽃을 뿌리는 행위를 통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²⁵⁾ 그렇다면 이별은 예정된 운명이고, 화자는 이를 수용할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해석은 ‘역겹다’는 구절을 고려하면 문맥상 거슬린다. ‘역겹다’는 심선옥이 이해한 대로 “역정(逆情, 몹시 언짢거나 마땅찮게 여기어 내는 성, 逆症)이 나게 겹다”는 뜻이며,²⁶⁾ 박일환이 쉽게 설명한 대로 “흔히 구역질이 날 정도로 싫다는 느낌”을 표현한다.²⁷⁾ 사랑하다가 어느 정도 싫어했다면 상대방의 사정을 위하여 싫은 감정을 참고 떠나는 행위를 좀 미뤄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토할 것 같다면, 아무리 친

23) 가능성이 별로 없는 가정된 이별이라는 견해는 “假定法的 진술”(오세영, 앞의 논문, 267쪽), “어디까지나 가상적 상황”(유창근, 앞의 책, 62쪽), “가정된 헤어짐의 상황”(유종호, 앞의 논문, 28쪽), “이별을 가정(假定)하는 것”(이수근, 앞의 논문, 230쪽) 등에서 볼 수 있다.

24) 미래에 가능하거나 예정된, 또는 예상되는 이별이라는 견해는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예감 또는 대비”(김재홍, 『한국 현대시인 연구』 1, 일지사, 1986, 37쪽), “이별을 예감하면서”(정운채, 『작품서사 분석을 통한 〈진달래꽃〉의 ‘역겨워’와 〈가시리〉의 ‘선하면’에 대한 이해』, 『문학치료연구』 15, 2010, 223쪽), “님이 떠나고자 하는 그 순간”(심선옥, 앞의 논문, 168쪽), “이별을 하기 전의 시집에 있다”(권정우, 『근대적 사랑의 탄생 :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62, 2007, 339쪽)와 “조만간 이별을 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권정우, 앞의 논문, 2013, 14쪽) 등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심선옥과 권정우는 이별을 아주 가까운 미래에 예정된 임박한 상황으로 본다.

25) 심선옥, 앞의 논문, 168쪽.

26) 위의 논문, 169쪽.

27) 박일환, 『진달래꽃에 갇힌 김소월 구하기 : 새롭게 읽는 소월의 시』, 한티재, 2018, 33쪽.

절을 발휘하고 싶어도 즉시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적인 용례로 보아도 그렇지만, 특히 시의 문맥을 고려하면, “억겨워/가실째”에서 억겨운 것과 가는 것은 ‘-르’의 시간적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화자에게 이별은 예정된, 또는 예상되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의 가정에 불과하다.

두 번째 논란은 “말업시 고히 보내드리우리다”가 말 그대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는 축어적(逐語的) 해석과 속마음은 반대일 것이라는 반어적 해석에서 일어난다. 화자의 입장을 산화공덕의 심정으로 본 초기 비평에서는 당연히 곱게 보내겠다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에 와서도 김학동은 “억지로 잡지 않고 말없이 보내주겠다는 것”이 화자의 의지라고 결론짓는다.²⁸⁾ 반면, 오세영은 “고히 보낸다는 표현은 고이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反動 形成의 진술”이며, 화자는 “그 심층적인 감정을 숨기고 반어적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한다.²⁹⁾ 임문혁도 이 구절이 “시의 전체 내용으로 볼 때에 적지 않게 모순되는 표현”이라고 보고,³⁰⁾ 김장동 역시 “굴종과 체념”을 깔고 있지만 “결코 가셔질 수 없는 사랑의 미련이 뚜렷하다”고 본다.³¹⁾

어떤 진술이 축어적 진술인지 수사적 진술인지 하는 판단은 절대적일 수 없으며, 독자의 정교한 식별력을 요한다. 말할 때 화자가 단어의 외연적 의미와 어울리지 않는 뒤틀리는 억양이나 제스처를 함께 구사하면 반어적 어조를 추정하기가 비교적 쉬울 테지만, 글에서는 그러한 단서가 배제되므로 그 어조를 포착하기가 더 어렵다. 필자가 보기에, 반어법을 의심케 하는 단서는 다음과 같다.

- (1) 진술의 외연적 의미가 일반적 기대에 어긋날 경우 진의를 의심할 수 있음.
- (2) 진술의 외연적 의미가 필요 이상으로 강조될 경우 진의를 의심할 수 있음.
- (3) 진술의 외연적 의미가 문맥상 다른 부분들의 의미에 어긋날 경우 진의를 더 유력하게 의심할 수 있음.

필자는 “말업시 고히 보내드리우리다”를 반어적 진술로 본다. 단, 앞의 해석자들은 반어법을 “고히”라는 부사에 적용하여 보내는 심정이 ‘곱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이다. “보내우리다”의 반어적 의미는 ‘보내지 않겠다’이다. 우선, 이별을 당할 때 사람은 임을 보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고히”든 어떻게든 임을 보내주겠다는 화자의 말 자체를 진심으로 보기 어렵다(1). 또, 현재 임은 화자를 사랑하고 이별이 예상되지도 않는데, 화자가 굳이 이별을 가정하면서까지 갈 테면 보내주겠다고 임에게 말하는 것은 문맥상 이상하다(3). 그리고 이 시가 맨 처음 실린 『개벽』에는 “고히”가 “고히고히”라고 되어 있다.³²⁾ 이 강조는 화자의 극진한 정성을 뜻한다기보다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필요 이상의 강조이므로, 진의를 매우 의심케 한다(2). 최초의 텍스트에서는 소월의 반어적 의도가 덜 정제되어 있었던 셈이다.

28) 김학동, 앞의 책, 144쪽.

29) 오세영, 앞의 논문, 268쪽.

30) 임문혁, 앞의 논문, 222쪽.

31) 김장동, 앞의 논문, 434쪽.

32) 김소월, 「진달래꽃」, 『개벽』 25, 1922, 146쪽; 박찬익(편), 『개벽』 7(영인본), 박이정, 1999. 이후 출처 표기 생략.

이별을 요구당하면, 사람들은 보통 말로 하소연하거나 원망해서 상대방을 붙잡으려고 한다. 그런데, ‘말없이 고이 보내주겠다’는 것은 화자가 남들이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입을 붙잡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상대방의 감정이 이미 역겨워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어지간히 싫어진 정도라면, 말로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겨워진 상태라면 그 상황은 이미 지나버린 것이다. 화자는 말로 하는 것이 소용없을 것임을 알고, 남들처럼 소용없는 짓을 하지는 않겠다고 말한다.

2. 제 2연

寧邊에藥山

진달래꽃

아름싸다 가실길에 뿌리우리다

기존의 해석자들은 이 말이 이별을 수용하는 한 가지 방식-물론 흔하지는 않은 방식-이라고 본다. 1연을 일단 이별 수용의 의미로 이해한 이상, 2연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한편, 자기를 버리고 가는 이의 길에 꽃을 뿌리겠다는 것에 대해 I에서 보았듯이 유종호는 “몹시 작위적이고 부자연스럽다”고, 그리고 송희복은 “극히 작위적이며 恣意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지적한다. 즉 그 행위가 일반적 경험칙에 비추어 이별의 행위로서 자연스럽지 않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들 역시 꽃을 뿌리는 행위는 작위적이거나 화자의 속마음에 어긋나기는 해도 결국 이별에 응하는 화자의 행위라고 본다.

그러나 이별을 당하는 상황에서 화자가 꽃을 따다 입이 가실 길에 뿌리겠다는 것은 이별에 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별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1연에서 화자가 소용없다고 판단하여 말로 붙잡지 않기로 한 대신, 입의 역겨워진 마음을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키기 위해 새롭게 고안해낸 방식이다. 사랑을 놓치느냐 지키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가하게 원망이나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대신, 허겁지겁 영변으로, 약산으로 달려가서, 지천에 곱게 핀 진달래꽃을 “아름싸다” 입 가실 길에 뿌리겠다는 것이다.

“寧邊에藥山”에 대하여, 송희복은 소월은 “관형격 /-의/를 주로 치격 /-에/로 사용했으며,” 따라서 이는 “영변의 약산”이라고 설명한다.³³⁾ 반면, 이상호는 “음수울 측면에서 다른 연에 비해 음절수가 많이 부족함을 고려할 때 ‘있는’이 생략된 형태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본다.”³⁴⁾ 즉 ‘영변에 있는 약산’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벽』과 김억의 『시집 : 잃어진 진주』 『서문대신』에 실린 초기 텍스트에는 “寧邊엔 藥山”으로 되어 있다.³⁵⁾ 이후 텍스트가 수정되었더라도 원래 시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때로 지침이 될 수 있다. ‘-엔’은 처소격 조사 ‘-에’와 강조격 조사 ‘-는’의 준말이다. ‘영변에는 약산’이란 말인데, 이는 서술형 진술을 유도하며, ‘영변에는 약산이 있다’를 말하다 만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정된 텍스트의 ‘-엔’은 관형격 대신이라고

33) 송희복, 앞의 책, 85쪽.

34) 이상호,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대한 재인식」, 『한국시학연구』 23, 2008, 249쪽, 각주 9.

35) 김억(역), 『시집 : 잃어진 진주』, 평문관, 1924, 26쪽. 이후 출처 표기 생략.

보다 원래의 ‘-엔’에서 강조격을 뺀 처소격이므로, “寧邊에藥山” 역시 ‘영변에 약산이 있다’의 불완전한 진술로 보아야 한다. 진술의 불완전성은 이어지는 “진달래꽃” 앞뒤의 통사관계에도 나타난다. 정상적 구문이라면, ‘영변에 약산이 있는데, 그 진달래꽃을 아름 따다’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진달래꽃』의 현 텍스트에 따르면, ‘약산’과 ‘진달래꽃’의 통사관계가 끊겨 있고, 또 ‘진달래꽃’의 목적격 조사가 없으므로 ‘따다’라는 동사와의 관계도 끊겨 있다.

『개벽』 본에는 “진달래꽃을”이라고 목적격 조사가 있던 것이 『시집 : 잃어진 진주』 본에서는 “진달래꽃,”으로 수정되고, 이후의 본들에서는 ‘-을’이 없는 형태가 정착된다. 『개벽』 본에서 『시집 : 잃어진 진주』 본을 거쳐 현 『진달래꽃』 본에 이르면, 초기본들에서 미비했던 정형률이 확립된다. 각 연을 구성하는 세 행들의 음수율은 1연에서는 7/5/5+7로, 3연은 7/5/7+5로, 그리고 4연은 다시 7/5/5+7로 된다. 그러나 2연만은 5/4/8+5로 음보(音步)가 흐트러져 있다. 따라서 ‘-을’을 뺀 것이 율격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보기도 어렵다. 『백조』 본 이후 통사구조를 단속(斷續)하는 것이 소월의 의도였다고 보아야 한다. 흐트러진 통사구조와 음(音)의 겹음걸이는 입에거서 이별을 요구당한 화자가 갖게 될 혼비백산한 심리상태와 행동을 반영하는 형식적 파기이다. 형식과 내용간의 긴밀한 관계가 구현되어 있다.

자신이 역겨워져서 입이 간다고 가정해보니, 화자의 마음은 아득해진다. 말로 붙잡으려는 것은 소용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목숨보다 더한 사랑을 잃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화자의 생각은 온전한 통사구조를 이를 겨를도 없이 ‘영변’-‘약산’-‘그곳의 진달래꽃’-‘그 꽃을 따는 행동’으로 다급하게 도약한다. 다급한 이유는 입이 가기 전에 빨리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은 이미 화자를 보기가 역겨운 상태이므로 기다려줄 리도 없다. 화자의 머릿속엔 온통 진달래꽃밖에 없다. 『개벽』 본에서는 “그 진달래꽃을”이라고 “그”를 붙여서 약산의 진달래꽃에 대한 화자의 의식을 강조했고, 『시집 : 잃어진 진주』 본에서는 “그 진달래꽃,”이라고 “-을”을 뺀 대신 쉼표를 넣어 구획함으로써 그 의식을 더욱 강조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진달래꽃이 화자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그 꽃만이 입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약이기 때문이다. 박일환은 “왜 하필이면 영변에 있는 약산일까? 소월이 자란 고향의 남산봉에도 해마다 진달래는 피고 지고 했을 텐데”라면서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고는 “고을 수령의 외동딸이 약산에 갔다가 절벽에서 그만 강으로 떨어져 죽고, 그 죽은 님이 진달래가 되어 약산을 뒤덮고 있다는” 약산동대에 얹힌 전설을 소개한다.³⁶⁾ 그에 앞서 김학동 역시 같은 전설을 언급하면서, 그 이유를 “슬픔과 원망이 사무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³⁷⁾ 그러나 그 전설은 해석자가 화자의 감정을 이별 수용의 한으로 규정하고서 끌어온 것일 뿐, 전설의 내용에 수령의 외동딸이 이별당한 한을 안고 죽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화자의 감정을 한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전설과 한 사이에 긴밀한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필자가 보기에, 굳이 “약산”의 진달래꽃인 이유는 약산에서 딴 진달래꽃이니까 이별을 막는 약으로 효험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텍스트의 문맥에서 형성되는 중의법(重義法, pun)의 수사적 효과이다.

36) 박일환, 앞의 책, 25~26쪽.

37) 김학동, 앞의 책, 43쪽.

이문은 화자가 이별 방지약으로 진달래꽃을 왜 한 아님이나, 즉 최대한 많이 필요로 하는가이다. 자신을 싫어하는 임의 상태가 경증이면, 한 두 송이의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화자는 임의 상태를 이미 역겨워져서 도저히 화자 곁에 참고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악화된 사망(이별) 직전의 중증으로 가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병을 고치려면 약을 많이 구비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일꾼과 트럭이라도 불러서 진달래꽃을 더 많이 따오는 것만도 능사는 아니다. 그럴 시간에 임이 가버리면 다 헛수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의 약은 당사자가 직접 구해서 정성을 다해 달여야 효과가 있다. 화자가 최선을 다해 급히 마련할 수 있는 최대의 양이 곧 한 아님 분량인 것이다.

그렇다면, 진달래꽃이 어떻게 이별 방지의 약효를 갖는다는 말인가? 그 내용은 3연에 진술되어 있다.

3. 제 3연

가시는거름거름
노한그꽃을
삼분히즈러밟고 가시옵소서

진달래꽃을 뿌리는 행위를 곱게 보내는 행동으로 보는 해석자들에게 “삼분히즈러밟고”는 그간 적잖은 당혹감을 불러일으켰다. 이기문은 “즈러밟고”를 “발 밑에 있는 것을 힘을 주어 밟는 동작”으로 설명한다.³⁸⁾ 하지만, 권영민은 “즈러”를 “힘을 주어”로 보며 “사뿐히”라는 부사와 어울리지 못”한다면서, 이기문의 해석을 따르지 않는다. 대신, 김억의 『소월시초』(1950) 본에 “지레 밟고”³⁹⁾로 나온 것에 착안한다. 그리고, ‘지레 짐작하다’나 ‘지레짐치’ 등의 예를 들며 “지레”가 “어떤 시기가 되기 전에 미리”라는 뜻을 갖는다”면서, “지레 밟고”는 ‘남이 밟고 가기 전에 먼저 밟고’라는 뜻”이라고 풀이한다.⁴⁰⁾

이동룡은 “지레”에 남이 하는 행위의 시간대와 자신의 시간대를 비교하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다”면서 달리 생각한다.⁴¹⁾ 그는 “즈러”를 “지레”로 보는 데는 일단 동의한다. 하지만, “지레”를 ‘걸음’과 연결하고, “지레 걸음”은 “실제로 내딛는 발걸음보다 마음이 한 발 앞서가는 발걸음”으로 “하루속히 벗어나고 싶은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래서 “가벼운 발걸음”을 뜻하는 ‘사뿐히’와 “망설임이 없이 마음이 한발 앞서가는 ‘지레밟고’에” 모순이 없다는 것이다.⁴²⁾

이동룡의 해석은 이번엔 “엄연히 ‘지레’는 ‘밟고’를 수식”하는데 “왜 ‘지레 밟는 것’을 ‘지레 걷는 것’으로 해석하는가?”라는 임흥빈의 반대에 부딪힌다. 임흥빈 역시 “즈러”는 “지레”라고 본다. 다만, “지레짐치”의 ‘지레’는 ‘본 김장김치’와 비교하여 그 양이 적다는 의미를 가진다”면서, “지레밟고”는 “조금 밟는 것”……뒤축이 아

38) 이기문, 「소월시의 언어에 대하여」, 『백영정병옥선생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82, 34쪽.

39) 김억(편), 『소월시초』, 박문출판사, 1950, 78쪽; 엄형섭(편), 『한국현대시사자료집성』 18, 태학사, 1982, 436쪽.

40) 권영민, 앞의 논문, 209~210쪽.

41) 이동룡, 「소월의 시어 ‘즈러밟고’의 어의」, 『인문과학』 29, 1999, 113쪽.

42) 위의 논문, 112쪽.

닌 앞축으로 밟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삼분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는 ‘삼분히 앞축으로 밟고 가시옵소서’가 된다”고 의미관계를 순조롭게 설명한다.⁴³⁾

권영민·이등룡·임홍빈의 주장은 모두 이기문의 해석대로라면 “삼분히”와 “즈려”가 모순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지레’의 뜻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또는 어떤 기회나 때가 무르익기 전에 미리”이다. 남들보다 앞서는 뜻이라는 권영민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렇다고 “지레 걸음”이 가벼운 마음의 발걸음이라는 이등룡의 의견에도 동의할 수 없다. “걸음”이라는 물리적 동작을 수식하는 “지레”를 심리적 의미로 전환하는 의미론적 비약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레짐작’이라면 ‘짐작’이 심리적인 것이니까 ‘지레’가 마음과 관련되지만, ‘지레김치’가 본 김장을 하기 전에 마음으로 앞서 담그는 ‘심리적’ 김치를 뜻할 수는 없다. “지레”가 “양이 적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임홍빈의 해석도 수긍하기 어렵다. 양의 과다가 “지레”의 본래 의미요소는 아니다. ‘지레 겁을 잔뜩 먹는다’는 표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레 밟는다’고 하면, ‘남들보다 먼저,’ ‘마음이 앞서,’ 또는 ‘조금 밟는 것’이라기보다, 물리적 차원에서 ‘아직 밟을 때가 아닌데 미리 밟는 것’을 뜻할 것이다. 타설해놓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았는데 지레 밟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이 시의 맥락에서는 구체적 상황을 헤아리기 어렵다.

통사구조상 “삼분히즈려밟고”의 “삼분히”와 “즈려”는 모두 “밟고”를 수식한다. “즈려밟고”의 뜻을 이기문의 풀이대로 “힘을 주어 밟는 동작”으로 보면, “삼분히즈려밟고”는 역설이다. 역설(逆說, paradox)은 “얼핏 보면 스스로 모순되지만, 면밀히 고찰하면 그 심층적 의미가 드러나는 진술”이다.⁴⁴⁾ 상반된 두 의미는 “얼핏 보면”-즉 동일한 의미맥락에서는- “모순”되므로 의미관계를 성립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삼분히즈려밟”은 동작은 불가능하다. “밟고 가시옵소서”에서 “밟고”가 불가능하면, 가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결국, 임은 갈 수가 없다.

그러나, 상반된 두 의미를 성립시키는 맥락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면밀히 고찰하면, 그 심층적 의미가 드러난다. 예컨대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라는 역설은 육체적 생명이라는 동일한 맥락에서는 의미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죽는’과 ‘사는’의 의미맥락을 각각 당사자의 육체적 맥락과 살아남은 이의 정신적 맥락으로 구별하면, 이 표현의 의미는 ‘당사자는 육체적으로는 죽는다 해도 살아남은 이의 정신 속에서 계속 산다’는 뜻이 되므로 모순되지 않는다. “삼분히즈려밟고”에 대해 이기문은 “아무리 사뿐히 한다 해도 잔혹한 결과가 된다”고 하고,⁴⁵⁾ 권정우는 “삼분히”는 떠나는 사람의 심정을 드러내며, ‘즈려’는 남은 사람이 받는 고통을 드러낸다고 한다.⁴⁶⁾ 이들은 모두 “삼분히”와 “즈려”의 의미맥락을 각각 밟는 임과 밟히는 화자의 맥락으로 구별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다만, “진달래 꽃잎”은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객관화한 상관물이므로 진달래 꽃잎을 짓밟고 떠나는 행위는 바로 자신의 가슴을 짓밟는 행위가 된다는 오세영의 견해대로 진달래꽃을 화자로 본다고 해도,⁴⁷⁾ 밟히는 것은 일단 화자가 아니라 진달래꽃임을 짚고 갈 필요가 있다.

43) 임홍빈, 「진달래꽃에서 “즈려밟고”의 의미」, 『한국어 의미학』 25, 2008, 180~183쪽.

44) Merriam-Webster, *Merriam-Webster's Encyclopedia of Literature*. Springfield, MA: Merriam-Webster, 1995, p.589.

45) 이기문, 앞의 논문, 34쪽.

46) 권정우, 앞의 논문, 2013, 17쪽.

47) 오세영, 『한국현대시인연구 : 20세기 전반기를 중심으로』, 도서출판 월인, 2003, 9쪽.

그렇다면, 진달래꽃을 “삼분히즈러밟”이라는 화자의 말은 결국 무슨 뜻인가? 역겨워 떠나는 임이야 “삼분히” 밟겠지만, “즈러” 밟히는 진달래꽃은 그 발밑에서 으깨지고, 붉은 꽃물을 흘릴 것이다. “즈러밟”은 자신의 동작이 아름다운 꽃의 피를 흘리는 행동임을 보는 순간, 임의 마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더 이상 사뿐하지 않고 무거워질 것이다. 이제 임은 차마 꽃을 밟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임은 결국 갈 수가 없다. “삼분히즈러 밟고”의 통사적 의미로 보나 수사적 의미로 보나, “가시웁소서”는 화자가 임을 결국 가지 못할 것임을 알고서 한 말이다. 3연의 마지막 행이 이전의 『개벽』 본과 『시집 : 잃어진 진주』 본에서는 “고히나 즈러밟고 가시웁소서”로 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나’는 “정도가 높음을 강조하는 보조사”이다. 따라서 “고히나”는 『개벽』 본 1연의 “고히고히”처럼, 일반적 경험칙이나 텍스트의 문맥상 격에 맞지 않게 그 의미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함으로써 진의를 상당히 의심케 한다. 초기본들의 “고히나”는 임이 갈 수 없다는 화자의 반어적 진의를 『진달래꽃』 본의 “삼분히”보다 덜 정제된 모습으로 노출시킨다.

그런데, 왜 화자는 꽃을 임이 “가시는거름거름”마다 놓겠다는 것인가? 여기에서, “거름거름”은 1연의 “역겨워”와, 그리고 2연의 “아름싸다”와 의미관계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사랑의 마음에서라면 상대방의 아픔을 예감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를 아예 하지 않을 것이다. 무심하다면, 잔인한 행동인줄 모르고 한번 저지를 수는 있겠지만, 당하는 상대방의 고통을 보는 순간 멈출 것이다. 그러나 ‘역겨워진’ 감정에서라면, 고통스런 자신의 마음이 아파하는 상대방의 마음보다 더 절실할 것이다. 즉 자신의 잔인한 행동에 대한 반성보다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할 것이다. 피 흘리는 진달래꽃의 아픔이 한두 번으로는 밟는 이의 마음에 전해지지 않거나, 전해진다 해도 그 행동을 당장 멈추게 할 정도로 강한 가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처음엔 미미하다고 해도, “거름거름”마다 반복해서 밟다 보면 가책은 점차 누적되고, 꽃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나 자신의 역겨운 감정을 누그러뜨릴 것이다. 마침내, 자기 발밑에서 으깨지는 것이 예쁘고 예쁜 진달래꽃임을 깨닫는 순간, 더는 걸음을 내디딜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몇 걸음 후이나 임의 눈이 다시 뜨여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지 화자는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안전하도록 “아름싸다”가, 그것도 임이 피해가지도 못하도록 “가시는거름거름”마다 뿌려놓겠다는 것이다. 기필코 성공하려는 화자의 주도면밀한 설계와 정성을 다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임은 원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서 화자를 사랑했던 사람이다. 살다보니 어쩌다가 역겨움에 사로잡혀서 그 아름다움을 잠시 보지 못할지언정, 사람의 천성적 심미안, 즉 진실한 사랑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없다고 화자는 믿고 있다. “아름” 따다 뿌려놓은 꽃들을 다 밟기 전에는 임의 마음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지혜와 힘이 되어, 화자는 진달래꽃이라는 자신만의 미약(美藥)으로 최선을 다해 역겨워진 임의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을 창안해낸 것이다.

4. 제 4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죽어도아니 눈물흘니우리다

4연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뜻과 ‘흘리겠다’는 뜻으로 나뉜다. 소월 사후 김억은 “울며불며 가지말나는것보다도 가는것이 원망스러워서, 니를악물고 죽어도 아니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외다”라면서, 인고(忍苦)의 한으로 이해했다.⁴⁸⁾ 그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해석은 당연시되었다.

반면, 이상호와 송희복은 ‘눈물을 흘리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이상호는 “인고를 통한 정한의 극복의 지’라는 표현”은 “보편적 인간 심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억지 해석”이라면서, 현대 맞춤법으로 수정한 텍스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텍스트들의 “원본비평”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① 죽어도 아니, 눈물흘니우리다. - 『개벽』(1922)에 실린 초간본 형태
- ② 죽어도아니 눈물흘니우리다 - 『진달내꽃』(1925)에서 수정된 형태
- ③ 죽어도 눈물 흘니우리다. - 『삼천리』(1931)에 재수록된 형태⁴⁹⁾

그는 ①에서 “선표는 ‘아니’가 뒤의 ‘눈물흘니우리다’로 연결될 가능성을 막고 앞의 ‘죽어도’를 부정하는 효과, 이른바 정정어법의 기능을 한다”고 본다. 즉 최초본에서 소월은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러려던 처음의 생각이 바뀌어 ‘아니’에 의해서 ‘죽어도’가 삭제되고 ‘눈물을 흘릴 것이다’라는 의미로” 변하도록 의도했다고 풀이한다.⁵⁰⁾ 또한, ③이 출판과정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소월이 생존하던 시기”에 출간되었으니까 “시인의 의도”를 지녔을 것이라고 본다.⁵¹⁾ 『개벽』 본에 담긴 소월의 의도가 『삼천리』 본의 텍스트에 반영되었을 거라는 것이다.

한편, 송희복은 통사구조를 다르게 본다. “차마 아니 솟는(나오는) 눈물을, 속으로 꼭 참고 있었던 눈물을 흘리겠다”라는 것이다.⁵²⁾ 즉 “아니”가 “눈물”과 의미관계를 맺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역시 『삼천리』 본의 텍스트에 의지하여 자신의 해석을 보강한다. “1922년 『개벽』 지에 발표한 최초의 원문과, 1926년 시집에 실려 있는 원문과, 1931년 『삼천리』 지에 재게된 원문은 서로 다르다면서, “오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숫제 ‘아니’라는 문제적 요소가 탈락되어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고 본다.⁵³⁾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죽어도 눈물 흘니우리다.”가 수록된 『삼천리』는 필자가 확인한 바로 1931년 판이 아니라 1933년(昭和八年) 9월호이다.⁵⁴⁾ 송희복이 『진달내꽃』(1925)의 연도를 1926년으로 쓴 것은 간단한 오타로 치더라도, 『삼천리』 본 연도의 오류는 필자가 본 것만 해도 세 명의 연구자를 거쳐 일종의 전통

48) 김안서, 「소월의 생애와 시가」, 『삼천리』 2월, 1935, 218쪽; 김영식(편), 『삼천리』 8(영인본), 도서출판한빛, 1995, 526쪽.

49) 이상호, 앞의 논문, 245쪽.

50) 위의 논문, 256~257쪽.

51) 위의 논문, 245쪽.

52) 송희복, 앞의 책, 94쪽.

53) 위의 책, 91~92쪽.

54) 소월, 「진달내꽃」, 『삼천리』 9월, 1933, 118쪽; 김영식(편), 『삼천리』 5(영인본), 도서출판한빛, 1995, 478쪽.

으로 굳어지는 것 같아서 간과하기 어렵다. 김종옥이 “《삼천리》 21호(1931. 11)에 수록된 〈진달래꽃〉의 제 4연 3행에는 「죽어도아니 눈물흘니우리다」가 「죽어도 눈물 흘니우리다」로 되어 있어 「아니」가 탈락된 것을 볼 수 있다”⁵⁵⁾고 한 것을 출처 확인 없이 믿고 의지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

필자는 4연이 ‘눈물을 흘리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다. 우선, 이상호와 송희복의 통사구조 분석은 우리말 어법상 자연스럽지 않다. 『개벽』 본의 “선표는 ‘아니’와 ‘눈물’ 사이의 결합을” 간접화하여 “아니가 직접 ‘눈물’을 수식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고, 따라서 “아니가 ‘눈물 흘리’ 전체를 부정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임흥빈의 견해가 더 설득력 있게 보인다.⁵⁶⁾ 즉 “죽어도아니”는 문장부사인 것이다. 그리고, 『삼천리』 본의 표기는 “아니”가 누락된 오식인 것 같다. “죽어도 눈물 흘니우리다”는 의미상 매우 어색하기 때문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죽어도”의 “-어도”는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고, 1, 2, 4연의 문장을 끝내는 “-리다”는 “상대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의향을 말해 주는 종결어미”이다. 이별의 상황에서는 눈물이 저절로 흐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힘을 들여 노력해야 한다. “죽어도”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즉 ‘힘들게 노력하다가 설사 죽는다고 하더라도’라는 가정적 양보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눈물을 참기 위해 극단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어울린다. 반면, “죽어도 눈물 흘니우리다”라면, 이는 눈물을 흘리기 위해 극단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별을 당하는 화자가 저절로는 눈물이 나오지 않아서 죽을힘을 다해 눈물을 짜내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 경험칙상, 그리고 시의 문맥상 아주 이상하다. “-리다”를 의향이 아니라 단순한 예상의 의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눈물이 흐르는 것을 화자 자신 이외의 다른 요인이 방해하지 않는다면, “죽어도”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의 의미관계는 어색하다.

4연은 구조와 의미상 두 가지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는 1~2행이 1연과 반복된다는 점에서 김장동의 말대로 “수미상관(首尾相關), 수미쌍관(首尾雙關)의 순환법”이라는 관점이고,⁵⁷⁾ 둘째는 절정부인 3연을 이어받아 시를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앞 연과의 관계라는 관점이다. 하지만 필자는 시의 구조상 “수미상관”에 동의할 뿐, “하소연과 원망일랑은 오직 참고 견디겠다는……초극의 의지”⁵⁸⁾라는 김장동의 의미해석에는 의견을 달리한다.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화자의 마지막 말은 1연의 “말업시”와, 그리고 “역겨워”와 의미관계를 갖는다. 말처럼 눈물로 호소하는 것 역시 이미 “역겨워”진 임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소용이 없을 것이므로, 눈물 따위는 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망의 말을 뱉으며 눈물 흘리는 것이 흔히들 하는 것이지만, 화자는 한 가하게 그러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연히 눈물이 솟구치겠지만, 사랑을 잃느냐 붙잡느냐가 정말 급한 문제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는 것이다. 따라서, 1연의 “말업시”와 마찬가지로, 4연의 “아니 눈물흘니우리다”는 임이 가도록 그냥 두겠다는 뜻이 아니다. “죽어도”는 당연한 인지상정을 누르면서까지 2~3연에서 말한 대로 역겨워진 임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즉 잃게 생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화자의 심정이 어떠한지 보여준다.

55) 김종옥(편), 『원본 소월전집』 상, 홍성사, 1982, 528~529쪽.

56) 임흥빈, 앞의 논문, 164쪽.

57) 김장동, 앞의 논문, 433쪽.

58) 위의 논문, 434쪽.

그 심정은 3연에 이미 제시되어 있다. 2연에서 떠다가 뿌린 진달래꽃들은 “즈려”뻗혀 으깨져 핏물을 흘릴 각오로 임의 눈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호소하여 임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어지간히 싫어진 마음이야 말과 눈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역겨워진 감정을 돌리는 방법은 사실 이것밖에 없을 것이다. 3연과 관련하여 볼 때, 4연의 “죽어도”는 자기 몸이 으깨지더라도 임의 마음을 돌리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상통하고, “아니 눈물 흘니우리다”는 이미 핏물까지 흘릴 각오를 한 마당에 눈물 흘리는 것은 그보다는 쉬울 테니까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별을 당할 때면 흔히 가학적·피학적·자해적인 감정·말·행동에 빠지기 쉽다. 그에 비하면, 속마음이야 어떻든 죽을힘을 다해 눈물을 참고 말없이 곱게 (다치지 않게) 상대방을 보내주려는 화자의 마음-기존의 해석-은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더 감동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가만히 앉아서 사랑을 잃고 죽을힘을 다해 눈물을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죽을힘을 다해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노력하는 마음이 진짜 감동적인 것이다. 「진달래꽃」의 화자는 그러한 경지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준다.

Ⅲ. 맺음말

「진달래꽃」의 담화상황이 극적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해는 좀 더 풍성해질 것이다. 화자의 말은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는 혼잣말이 아니라, “구체적 청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 화자의 독백”이다.⁵⁹⁾ 무엇보다 3연 3행의 “가시웁소서”의 명령형이 결정적 증거이다. 청자는 말하지 않지만 시적 상황에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 시는 아주 짧은 토막극처럼 독자에게 제시된다. “이 시는 독백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대사에 가깝고, 대사 중에서도 한 사람의 대사”라는 권정우의 말은 이 시의 연극성을 감지했음을 뜻한다.⁶⁰⁾ 일찍이 클리언스 브룩스(Cleanth Brooks)와 로버트 워런(Robert P. Warren)은 시는 “한편의 작은-때로는 큰-연극”이라고 말한 바 있다.⁶¹⁾ 연극의 기능과 특징은 워낙 다양해서, 시가 연극 같다고 할 때 그 말을 간단히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대초기의 자연주의 연극론자 장 쥘리앵(Jean Jullien)은 『살아 있는 연극』(*Le théâtre vivant*)(1892)에서 19세기 연극의 작위성을 타파하고 연극을 실제 삶과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 연극을 “숨씨 좋게 무대에 올린 삶의 한 단편(斷片)”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관객은 실제 삶에서 종종 전후맥락을 모르고 상황을 만나듯이, 무대에서도 잘 짜인 플롯 대신 자초지종을 알 수 없는 “삶의 한 단편”만을 만난다. 관객은 주어진 “단편”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야기의 전후맥락을 스스로 구성해야 한다.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것은 이야기가 불쑥 끝나는 것일 뿐, 작품은 관객에게 다른 편에서 곱곰이 생각할 자유로운 여지를 제공한다.”⁶²⁾

59) 권정우, 앞의 논문, 2013, 10쪽.

60) 위의 논문, 13~14쪽.

61) Cleanth Brooks · Robert P. Warren, *Understanding Poetry*, 4th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6, p.13.

「진달래꽃」의 독자 역시 화자와 청자의 연속적 삶에서 끊어낸 하나의 “단편”- 화자의 짧은 대사- 그것도 ‘초단편’을 불현듯 만난 셈이다. 독자는 우선 텍스트 자체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겠지만, 그것으로 할일을 다한 것은 아니다. 윌리엄스는 4년 뒤의 같은 저서 2권에서 “삶의 단편이라는 이 과일 조각은 씨를 구성할 뿐”이라며, “과육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⁶³⁾ “과육”이란 “단편”을 둘러싼 전후 맥락을 뜻한다. 정운채는 이 시가 보여주는 상황은 “‘나’에 해당하는 인물이 ‘역겨워’에 해당하는 인물과의 이별을 예감하면서, 만일 이별하게 되면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고 ‘말없이 고히 보내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이러한 상황만으로는 전후맥락과 자초지종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답답해한다.⁶⁴⁾ 그 답답함은 일단 시의 극적 상황을 인지하고, 윌리엄스의 말로 하면 “씨”로 만족하지 못해서 “과육”을 향한 추동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추동은 “단지 ‘나’에 해당하는 인물이 매우 절제된 이별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로 그친다.⁶⁵⁾ 이는 이 시에 대해 일찍부터 부과된 ‘이별 수용의 시’라는 강력한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본 논문 II에서 텍스트를 분석한 대로 화자가 하는 말-“단편”-의 전후맥락을 추정해본다면, 이 시의 답습상황을 좀 더 풍성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당신이 날 더 없이 사랑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보지만, 세상의 일이란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나 보기가 역겹도록 싫어진다면, 당신도 가려고 하겠지요. 만약에 그런 일이 내게도 생긴다면, 그때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말로 매달리거나 원망해서 상처를 주지 않고 곱게 보내드리겠어요.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영변에는 약산이 있고, 약산에는 진달래꽃이 있잖아요. 나는 약산을 허겁지겁 정신없이 오르내리며 그 진달래꽃들을 한 아름 되도록 따겠어요. 이미 역겨워진 당신의 마음이라면, 한두 송이로는 부족할 테니까요. 그 꽃들을 품에 가득 안고 와서, 당신이 가는 길에 뿌리겠어요.

당신이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그 꽃들을 놓을 테니, 할 수 있으면 한번 흥가분한 마음으로 힘주어 밟고 가보세요. 당신은 처음엔 역겨운 심정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미처 모르고 그 곱디 고운 꽃들을 밟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당신이라면, 당신은 으깨지며 피 흘리는 꽃들의 아픔을 느낄 거예요. 머지않아 자신이 밟는 것이 아름다운 진달래꽃임을 반드시 깨닫고, 차마 더 이상 걸음을 내딛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진달래꽃이 아름다워서 사랑했잖아요. 지금까지 나더러 당신의 아픈 삶을 달래주는 약 같다면, 藥山 진달래꽃이었잖아요.

지금은 그럴 리가 없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당신이 떠나는 일이 내게도 생긴다면, 그때는 나는 남들

62) Jean Jullien, *Le théâtre vivant: essai théorique et pratique*, Paris: Bibliothèque-Charpentier, 1892, pp.11~13.

63) Jean Jullien, *Le théâtre vivant: théorie critique*, tome 2, Paris: Galerie du Théâtre-Français, 1896, p.223.

64) 정운채, 앞의 논문, 223~224쪽.

65) 위의 논문, 224쪽.

처럼 소용없는 눈물이나 흘리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눈물로 호소해도, 역겨워진 마음이면 역부족이잖아요. 눈물을 참기는 죽을 듯이 힘들겠지만, 당신을 잃는다면 어차피 죽음보다 더하거든요. 피 흘릴 각오까지 한 마당에, 당신을 잃게 생겼는데 한가히 눈물이나 흘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대신 앞에서 말한 대로 할 테니,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당신은 가지 못할 겁니다.

문제는 왜 화자가 있을 것 같지도 않은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임에게 말하는가이다. 그것은 현재 화자가 청자와의 사랑을 위태롭게 느껴서가 아니라, 사랑의 행복감에 한껏 취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이따금 가장 불행한 상황을 가정해보기도 한다. 그 이유는 소월의 「시혼」에서 찾을 수 있다.

호젓이 비치는 달밤의 달빛 아래에는 역시 그에 뿐 固有한 陰影이 있는 것입니다.……달밤에는 달밤에 뿐 固有한 陰影이 있고 淸麗한 砵소리 노래에는 亦是 그에 뿐 相當한 陰影이 있는 것입니다. 陰影 없는 物體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存在에는 반드시 陰影이 따른다고 합니다.……곧 陰影에 그 深淺은 있을지라도 陰影이 없다고 할수는 없는것입니다.⁶⁶⁾

이러한 세계관에서 보면, 아무리 행복한 사랑의 순간도 이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일 수는 없다. 같은 생각을 김억은 “사람의맘도 흘러가는 물이외다.……누구라서 밝은月色아래서 깊이깊이맺은言約이 變치 아니하리라고 굿이밧고 그것을斷言할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한 적이 있다.⁶⁷⁾ 소월이나 김억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사랑의 마음에 심취하면 지극한 기쁨의 뒤편에서 막연한 이별의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기 마련이다. 「진달래꽃」의 화자도 임이 현재 미답지 못해서가 아니라, 실존적 두려움에서 이별을 가정해본다. 실존적 두려움을 예감하는 것은 현재 누리는 사랑의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한 예감은 또한 그 행복의 소중함을 새삼 확인시켜주며, 상상된 두려움을 피해서 임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사랑의 마음을 이끈다. 화자는 임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 천성과 사랑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 그러기에 자신도 혼신을 다하여 임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와 자신감을 임에게 말하는 것이다.

김억은 소월 사후 1935년에 소월이 “感情의이라기 보다도 理智的인” 사람이었다, 또 “비위에 맞기만하면 반듯이 웃장을내고야 말든” 사람이었다고 술회한다.⁶⁸⁾ 또 1938년에는 소월이 “어디까지든지 理智가 感情보다 勝한 聰明한사람”이었다면서, “克己의 힘이 있었고 自制的果斷이 있었든 것”이라고 평한다. 또한 “아무리 感情이 쏠린다 하더라도 理智에 빛되어 보아서 아니라는 判斷을 어들때에는……언제든지……斷念하든 것”이었다고 말한다.⁶⁹⁾ 하소연과 원망을 하고 싶고 눈물이 쏟아져 흐르는 감정이야 남들보다 덜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말을 참고 “죽어도 아니 눈물흘리”겠다는 화자의 자세는 김억이 파악한 소월의 “극기”와 “자제”의 힘을 그대로

66) 김억, 앞의 책, 1950, 175~176쪽; 엄형섭(편), 533~534쪽.

67) 안서, 「박행시인 소월」, 『삼천리』 11월, 1938, 75쪽; 김영식(편), 『삼천리』 18(영인본), 도서출판한빛, 1995, 389쪽.

68) 김안서, 앞의 글, 217쪽; 김영식(편), 525쪽.

69) 안서, 앞의 글, 80쪽; 김영식(편), 394쪽.

보여준다. 또한 울고불고 하는 것이 소용없다고 판단하고, 아름다운 진달래꽃을 따다가 임의 발밑에 놓는 자신만의 미학적 방법을 창안해낸 화자는 정말 “이지적”이고 “충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임의 발에 밟히어 으깨 지터라도 기어코 임의 마음을 돌리고야 말겠다는 화자는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반드시 끝장을 내고야” 마는 소월의 모습이다. 이점에서 「진달래꽃」의 화자는 시인의 자화상적 페르소나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다만, 김억의 말대로 사리에 어긋나는 것이 “감정”이라면, 화자는 “감정적이라기보다도 이지적인,” 또 “이지가 감정보다 승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임의 마음속에서 천성적인 사랑의 심미안을 느끼고 자신도 미학적·시적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화자는 결코 ‘감성’이 “이지”에 뒤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임이 떠날 때 이별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근대적 사랑”- 더 정확히는 ‘근대적 이별’- 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지극히 “이지적”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감성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현대적 사랑’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소월의 시심은 지성과 감성이 “통합된 감수성”이라는 엘리엇(T. S. Eliot)의 말로 대변되는 현대시적 감수성이라고 할 것이다.⁷⁰⁾

〈참고문헌〉

1. 원전자료

- 김소월, 「진달래꽃」, 『개벽』 25, 1922; 박찬익(편), 『개벽』 7(영인본), 박이정, 1999.
 김소월, 「진달래꽃」, 『진달래꽃』, 매문사, 1925, 도서출판소와다리, 2015.
 김안서, 「소월의 생애와 시가」, 『삼천리』 2월, 1935; 김영식(편), 『삼천리』 8(영인본), 도서출판한빛, 1995.
 김억(역), 『시집 : 잃어진 진주』, 평문관, 1924.
 김억(편), 『소월시초』, 박문출판사, 1950; 엄형섭(편), 『한국현대시사자료집성』 18, 태학사, 1982.
 소월, 「진달래꽃」, 『삼천리』 9월, 1933; 김영식(편), 『삼천리』 5 (영인본), 도서출판한빛, 1995.
 안서, 「박행시인 소월」, 『삼천리』 11월, 1938; 김영식(편), 『삼천리』 18 (영인본), 도서출판한빛, 1995.

2. 연구논저

-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검색일 : 2018. 11. 10).
 권영민, 「명시의 한 구절 :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의 의미 : 김소월의 ‘진달래 꽃」, 『새국어생활』 8: 4, 1998.
 권정우, 「근대적 사랑의 탄생 :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62, 2007.
 권정우, 「김소월 시의 구어체 진술」, 『한국현대문학연구』 41, 2013.
 권혁웅, 『시론』, 문학동네, 2010.
 김대규, 「Anima의 시학 : 소월시의 여성화 문제 연구」, 『연세어문학』 4, 1973; 김학동(편), 『김소월』, 서강

70) T. S. Eliot, “The Metaphysical Poets,” *Selected Essays*, London: Faber and Faber, 1980, p.288.

대학교출판부, 1995.

김장동, 「〈진달래꽃〉 신고(新考)」, 『새국어교육』 37, 1983.

김재홍, 『한국현대시인 연구』 1, 일지사, 1986.

김종옥(편), 『일본 소월전집』 상, 홍성사, 1982.

김학동, 『김소월평전』, 새문사, 2013.

박두진, 『한국현대시론』, 일조각, 1970.

박목월, 「김소월 : 철 이룬 진달래꽃」, 이희승(외편), 『한국의 인간상』 5, 신구문화사, 1966.

박일환, 『진달래꽃에 갇힌 김소월 구하기 : 새롭게 읽는 소월의 시』, 한티재, 2018.

박철석, 『한국현대시인론』, 학문사, 1984.

서정주, 「김소월시론」, 서정주·박목월·조지훈(공저), 『시창작법』, 선문사, 1955.

송희복, 『김소월 연구』, 태학사, 1994.

심선옥, 「김소월 시에 형상화된 ‘사랑’의 근대적 의미」, 『반교어문학연구』 12, 2000.

오세영, 『한국현대시인연구 : 20세기 전반기를 중심으로』, 도서출판 월인, 2003.

오세영, 「한의 논리와 그 역설적 의미 : 『진달래꽃』과 『초혼』을 중심으로」, 『문학사상』 12월, 1976.

유종호, 「임과 집과 길」, 『세계의 문학』 봄, 1977; 김학동(편), 『김소월』, 서강대학교출판부, 1995.

유창근, 『김소월의 시세계』, 도서출판동지, 1993.

이기문, 「소월시의 언어에 대하여」, 『백영정병옥선생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82.

이등룡, 「소월의 시어 ‘즈러뵈고’의 어의」, 『인문과학』 29, 1999.

이상호,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대한 재인식」, 『한국시학연구』 23, 2008.

이수곤, 「『진달래꽃』의 전통적 교육에 대한 반성적 검토 : 『진달래꽃』의 이른바 전통적 여인상과 고전시가 여인상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2: 3, 2008.

임문혁, 「〈진달래꽃〉의 연구성과와 교육적 수용방안」, 『청람어문교육』 1, 1988.

임홍빈, 「진달래꽃에서 “즈러뵈고”의 의미」, 『한국어 의미학』 25, 2008.

정금철, 「한의 정서와 시학 : 김소월, 서정주의 시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1, 2009.

정운채, 「작품서사 분석을 통한 〈진달래꽃〉의 ‘역겨워’와 〈가시리〉의 ‘선하면’에 대한 이해」, 『문학치료연구』 15, 2010.

Brooks, Cleanth · Warren, Robert P., *Understanding Poetry*, 4th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6.

Eliot, T. S., “The Metaphysical Poets,” *Selected Essays*, London: Faber and Faber, 1980.

Jullien, Jean, *Le théâtre vivant: essai théorique et pratique*, Paris: Bibliothèque-Charpentier, 1892.

Jullien, Jean, *Le théâtre vivant: théorie critique*, tome 2, Paris: Galerie du Théâtre-Français, 1896.

Merriam-Webster, *Merriam-Webster's Encyclopedia of Literature*, Springfield, MA: Merriam-Webster, 1995.

- * 이 논문은 2018년 11월 23일에 투고되어,
2018년 12월 19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9년 1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월 1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Kim Sowol's "Azalea Blossoms" Is Not a Poem of Parting**

Yoon, Hyonyung*

Kim Sowol's "Azalea Blossoms" is one of the most famous and highly evaluated modern Korean poems. And the extant interpretations have pointed out as its theme the feeling of grudge, the sense of grudge mixed with affection, a blessing by strewing flowers, the unconscious desire for a sexual union, or a modern type of parting without resentment on the part of the speaker encountering separation from the lover. Variegated as they are to a certain extent, these approaches to the poem all share the limited critical framework that the speaker is determined, if reluctant, to let go of the loving one, who is now unbearably sick and tired of even seeing the speaker.

However, my paper offers a new interpretation that it is not 'a poem of parting' but 'one of recovering love at stake.' In a purely assumed situation of parting, the speaker never accedes to the separation imposed by the now nauseated sweetheart. Rather, the speaker is bent on curing the sickness and restoring the partner's heart to its former state of love. Strewing beautiful azalea flowers under the steps of the departing lover is not a gracious farewell praying for the bliss of the goer's future as conventional scholars have claimed so far. Instead, it is a moving remedy appealing to the aesthetic taste which the speaker believes still to be working intact in the heart of the lover.

[Key Words] Kim Sowol, Azalea Blossoms, paradox, parting, love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